전쟁 2년 째 '아기예수 탄생지' 베들레헴 침울한 성탄절

수만명 운집했던 광장 인파 수백명 그쳐…성지 발길 뚝
피자발라 추기경 "이렇게 슬픈 성탄절, 올해 마지막 돼야"
'아사드 독재' 붕괴된 시리아 14년 만 성탄절 축제 분위기

축복기도하는 주민들 지난 24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지구 베들레헴 성당을 찾은 시민들이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며 기도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기독교 대축일이자 세계인들의 축제인 성탄절이었지만 예수의 탄생지인 요르단강 서안 도시 베들레헴은 올해도 트리를 세우지 못하는 등 침울한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2년째 이어지고 있어서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베들레헴 당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탄 트리나 화려한 장식, 떠들썩한 축하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순례객과 여행객도 급감하면서 예년이라면 발디딜 틈 없이 북적거렸을 구유 광장을 비롯한 시내 명소와 시장들도 한산하기만 했다.

이러한 상황은 수입의 70%를 관광에 의존하는 베들레헴 경제에 심각한 타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관광부의 지리에스 쿰시예 대변인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직전인 2019년까지만 해도 베들레헴을 찾는 방문객이 연간 200만명 안팎이었으나, 올해는 10만명도 채 되지 않는 숫자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톤 살만 베들레헴 시장은 "올해는 기쁨을 제한하기로 했다"면서 "성탄절은 신앙의 축제다. 우리는 신께 우리가 직면한 수난을 끝내달라고 기도하고 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루살렘 라틴 총대주교인 피에르바티스타 피자발라 추기경이 집전하는 특별미사는 예정대로 진행됐으나, 구유 광장에 모인 순례객과 주민의 수는 수만명 수준이었던 예년과 달리 수백명에 그쳤다.

피자발라 추기경은 전쟁터가 된 가자지구에서 막 돌아왔다면서 "모든게 파괴되고 굶주림과 재앙이 닥쳤다. 하지만 '생명' 또한 볼 수 있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여러분들 역시 결코 포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슬픈 성탄절은 올해가 마지막이 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7일부터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에서 4만5천여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관할하는 요르단강 서안에서도 1천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AFP 통신은 가자지구에서도 수백명의 현지 기독교인이 성탄 전야 미사를 올리고 전쟁 종식을 기도했다고 전했다.

12세기에 지어진 가자시티의 그리스정교회 성당 성 포르피리우스 교회에서 피란생활을 해 왔다는 주민 조지 알-사이그는 "올해 성탄절에는 죽음과 파괴의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그는 "기쁨도, 축제 분위기도 없다. 우리는 다음 명절까지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조차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바샤르 알아사드가 이끄는 독재 정권이 무너지면서 14년 가까이 이어졌던 내전이 종식된 시리아에서도 성탄 미사가 집전됐다.

'인간 도살장'이란 악명을 지닌 세드나야 교도소가 있었던 시리아 세드나야 지역에선 많은 주민들이 오래된 수도원 주변에 모여 트리를 밝히고 음악을 연주하며 평화 회복을 자축했다.

아사드를 축출하고 과도정부를 세운 반군 세력의 주축인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은 알카에다 연계 조직인 알누스라 전선의 후신이지만, 소수종교 보호 등을 공언하며 민족·종파간 화합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왔다. /연합뉴스

한반도 밤하늘 다녀간 산타…루돌프 썰매타고 선물 뿌려

북미항공사령부, 북극 출발 산타 실시간 추적…웹사이트 등 중계
오후 11시24분께 韓 도착…3분45초간 제주부터 서울까지 한바퀴

서울타워 지나는 산타 산타클로스가 루돌프들이 끄는 썰매를 타고 서울타워를 지나고 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밤 산타클로스가 루돌프들이 끄는 썰매를 타고 한반도 밤하늘을 찾아와 어린이들에게 2천만개 넘는 선물을 나눠주고 떠나갔다.

25일(한국시간)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가 공식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개한 산타의 실시간 위치 추적 경로에 따르면, 산타는 전날 오후 11시24분께 한국을 찾았다. 제주 서귀포 남쪽 상공으로 진입한 산타는 남해를 건너 부산을 시작으로 한반도 구석구석을 훑으며 북상해 서울로 진입했다.

NORAD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한 서울 방문 영상에 따르면 루돌프가 끄는 썰매를 탄 산타는 여의도 63빌딩과 남산 서울타워를 한 바퀴씩 돌았고, 이어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두 바퀴 돌고 경복궁 지붕 위를 지나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로 향했다.

산타가 제주부터 서울까지 주요 도시들을 훑으며 한국에 머문 시간은 약 3분45초였다. 지난 1년간 착한 일을 한 한국 어린이들에게 약 2천만개의 선물이 뿌려졌다.

휴전선 상공을 가로지른 산타는 북한에도 약 1분간 머물며 선물을 전달한 후 선양 방향으로 한반도를 빠져나갔다.

산타는 한국 시간으로 지난 24일 오후 6시 북극을 이륙해 전 세계를 도는 비행을 시작했다.

날짜 변경선을 따라 태평양 상공을 남하했다가 남극을 거쳐 다시 북상, 호주와 일본을 지나 한국으로 향했다.

이후 북한과 중국, 인도, 중동, 아프리카 대륙을 경유해 유럽 등 전세계를 빠짐없이 방문했다.

산타가 전달한 선물은 40억개를 넘겼다. 바쁜 이동 중에도 잠시 짬을 내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들러 7명의 우주비행사들에게도 선물을 전달했다고 한다.

잠재적 적국의 위협으로부터 북미 대륙 상공을 지키는 NORAD는 1956년부터 69년째 산타의 비행 경로를 실시간 추적해 어린이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현지 백화점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한 신문에 게재한 '산타에게 전화 걸기' 이벤트 광고의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된 탓에 NORAD로 어린이들의 전화가 쇄도한 일이 계기가 됐다.

NORAD는 레이더와 위성 등을 이용해 루돌프의 빨간 코가 방출하는 적외선을 추적해 위치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성베드로 대성전 개방…2025년 희년 막 올라

성문 통과하는 순례자 '잠벌 사면' 전대사 은총 받아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의 성문(聖門)을 열고 2025년 가톨릭 희년의 시작을 알렸다.

88세의 교황이 이날 휠체어를 타고 성문으로 이동해 문을 몇 차례 두드리자 문이 열리며 바티칸시국 전역에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문이 열리자 교황은 휠체어를 타고 성문 문턱을 넘어 대성전 안으로 들어가 성탄 전야 미사를 집전했다. 교황에 이어 전 세계에서 온 10명의 어린이가 전통 의상을 입고 성문의 문턱을 넘었다. 그 뒤를 전 세계 각지에서 온 54명의 신자가 뒤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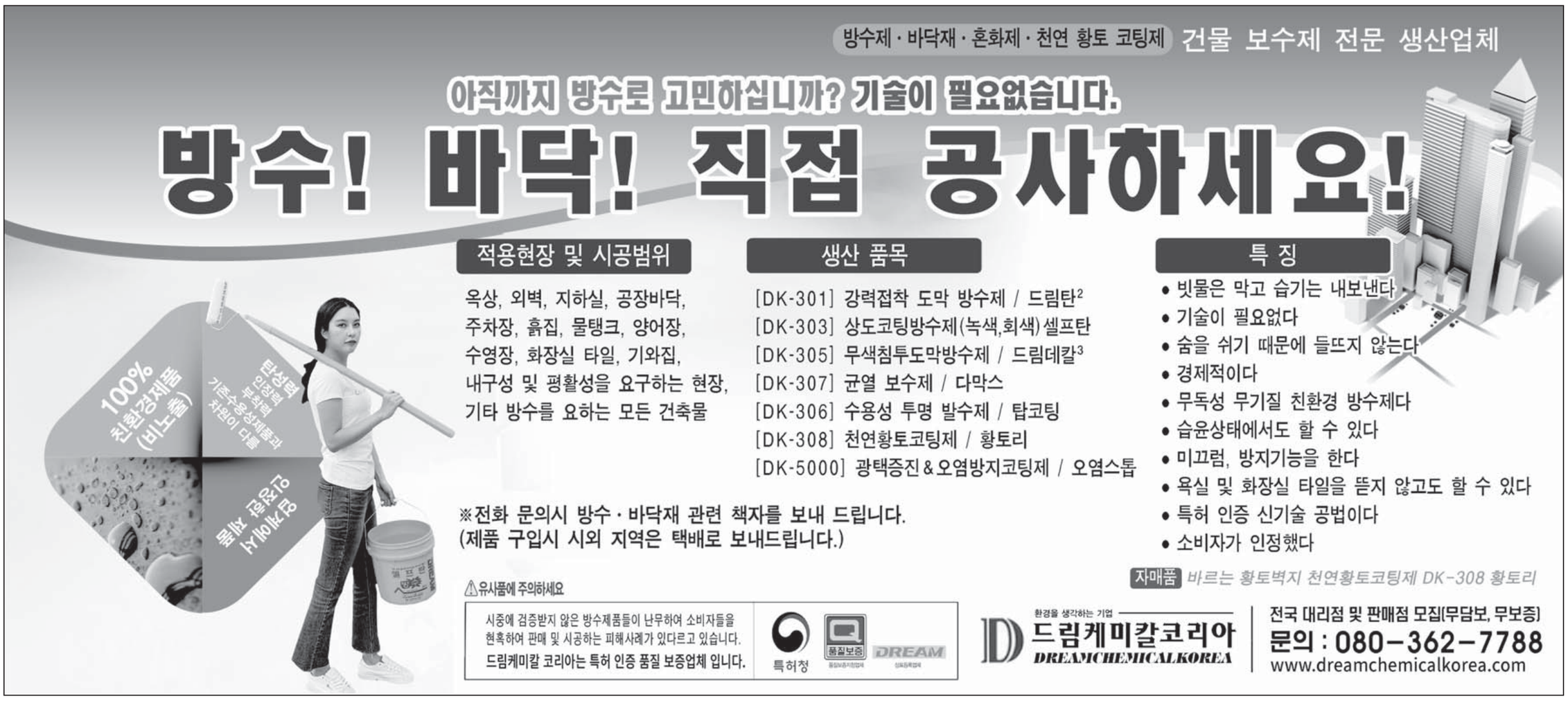
희년은 가톨릭교회에서 신자에게 특별한 영적 은혜를 베푸는 '성스러운 해'다. 다른 말로 성년(聖年)이라고도 부른다.

희년의 시작과 마침은 교황이 성 베드로 대성전의 성문을 여닫는 예식으로 이뤄진다. 2026년 1월6일까지 개방되는 이 성문을 통과하는 순례자는 죄에 따른 잠벌을 면제하는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교황은 "우리 여정의 발걸음은 전 세계 교회의 발걸음이며, 세상 속의 순례자이자 평화의 증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턱을 넘으면 신자들은 자비와 용서의 시간에 들어간다"며 "우리는 이 문턱을 넘음으로써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용서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교황은 희년 기간에 전 세계에 평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신한다.

희년은 구약성경에서 유래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법에 따라 50년마다 한 번씩 축제를 거행했는데, 이때 모든 빚을 탕감하고 노예를 해방하라는 규정이 있었다.

가톨릭교회에서는 1300년 보니파시오 8세 교황이 이 축제에서 유래한 희년을 선포하며 기리기 시작했다. /연합뉴스